전남개발공사 '적자' 숙박시설 3곳 매각 실패

오동재·영산재 응찰자 없어 … 땅끝호텔도 매각 난항

"수익전망 없이 무리한 투자… 책임소재 가려야" 주장도

전남개발공사가 '적자행진'으로 공사의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숙박시설 3곳의 1차 매각에 실패했다. 2차 매각에 나설 예정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수익 전망도 없이 관광숙박시설에 무리한 투자를 했기 때문으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8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개발공사가 운영하는 한옥호텔인 오동재(여수), 영산재(영암) 매각을 위해 최고가 공개경쟁 입찰을 7일 마감한 결과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는 금주 말 또는 내주 초 2차 입찰공고를 내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한옥호텔에 대한 수익성 기대가 크지 않아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입찰 예정가를 낮추기보다는 2차 매각에 나선 뒤 실패할 경우 가치를 높여 재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1차 입찰 예정가는 오동재 271억원, 영산재 116억원으로 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양지문 사장 취임 이후 추진중인 '재정건전화 및 구조조정'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개발공사는 해남 땅끝 호텔(예정가 66억6600만원) 매각을 위해 최근 1, 2차 최고가 공개경쟁 입찰을 했으나 응찰자가 없었다. 매년 운영 적자를 보이며 '애물단지'로 전락한 이들 숙박시설의 매각이 어려워지거나 매각 가격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개발공사 측은 땅끝 호텔 경우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오동재와 영산재는 2차 공개경쟁 입찰에서도 응찰자가 없으면 예정가(감정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3차 매각에 나설 예정이다.

오동재는 2만7601㎡ 부지에 사랑채 본관을 포함한 7개동 40객실 규모다. 전통혼례청, 한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앞서 2012년 4월에 개관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영산재는 1만8579㎡ 부지에 7개동 21객실 규모로 전통문화체험관, 전통혼례청, 연회장, 한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2011년 9월부터 운영 중이다.

해남 땅끝 호텔은 90객실 규모로 개발공사가 지난 2010년 민간 사업자한테 35억원에 매입해 47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했다.

이들 숙박시설의 적자는 지난해 기준 오동재 8억원, 영산재 8억원, 땅끝 호텔 6억원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더 레이서' F1경주장서 촬영 연예인 총출동

류시원·추성훈 등 출전

토요일 오후 방영 예정

전남도는 8일 "모터스포츠를 소재로 한 공중파 방송 예능 프로그램 '더 레이서'가 9일 영암 F1경주장에서 촬영된다"고 밝혔다.

'더 레이서'는 류시원, 추성훈, 김연우, 전혜빈, 정보석, 한승연, 박형식, 정진운, 니엘, 정다래, 컬투 정찬우 등 다수 연예인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모터스포츠의 기초단계인 카트부터 시작해 짐카나, 드래그, 드리프트, 자동차 정비와 튜닝에 대한 부분까지 4개월간 훈련을 마친 후 오는 10월 18일 영암 F1경주장에서 열리는 '슈퍼레이스' 대회에 출전한다는 내용이다.

9일 촬영에 이어 20일 2차, 10월 18일 최종편 촬영이 영암 F1경주장에서 예정돼 연예인을 응원하기 위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 레이서'는 토요일 오후 6시 황금시간대에 전국 공중파로 방영돼 모터스포츠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5~6일 영암에서 개최된 'KIC 컵 투어링카 레이스' 3전에서는 총 200여 대의 일반인 레이서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특히 지역별 대항전에서는 광주 '팀파워' 팀이 최초로 우승을 거뒀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영산강사업 3년 수질 일부 악화"

도의회 안전행정환경위 분석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전후 수질을 분석 비교한 결과 일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남도의회 안전행정환경위원회에 따르면 영산강 사업을 전후 3년간의 수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사업 전인 2007~2009년 1~8월에 비해 사업 후인 2012~2014년 1~8월의 BOD와 TP는 개선된 반면 COD, Chl-a는 승촌보를 중심으로 소폭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OD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TP는 물에 용해되어 있는 인(P) 화합물의 총량이며,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Chl-a는 엽록소를 의미한다.

이날 오전 영산강 죽산보를 찾은 전남도의회 안전행정환경위원회는 녹조 대책을 주문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원들은 죽산보 현장을 둘러보고, 수질상태를 직접 점검한 후 녹조 발생 시 정수처리 강화, 주변 오염원에 대한 합동단속 등 유관기관 역할분담을 통해 신속한 해결에 나설 것을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이어 도의원들은 전남자연환경연수원을 방문해 현황 청취와 함께 시설물을 둘러보고 연수원이 명실상부한 청소년교육과 환경교육의 산실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정영덕 안전행정환경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각종 민생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수렴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등 현지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쿠바 대표와 함께 축하공연 관람한 김정은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일 북한-쿠바 수교 55주년을 맞아 방북한 쿠바 정부의 '2인자'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수석부의장 부부를 비롯한 쿠바 대표단과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의 축하공연을 관람했다고 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자동심장충격기·방독면 턱없이 부족

의무 대상지역 절반만 설치

광주시가 확보한 시민 안전 관련 장비가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환자 발생시 사용하는 자동심장충격기와 화생방 위험 상황에 대비한 방독면 등이 절반을 약간 웃돌았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는 공공청사, 다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의무설치 대상 294곳 중 56.8%인 167곳만이 설치됐다.

공중보건의료기관과 119구급차, 광주공항, 종합운동장 등은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 하지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설치대상 240곳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10곳(45.8%)에 그쳤다.

특히 광산구는 80곳 중 16곳만이, 동구는 5곳 중 1곳만이 설치돼 20%에 불과했다.

더욱이 2013년부터 관련법에 국·시비(5 : 5)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국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하고도 시비를 다 확보하지 못해 5000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정부는 2년째 광주시에 국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급성 심정지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료장비로 4분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 광주지역 구조구급차량 평균 출동시간은 6분이다.

또 화생방 위험 상황 등에 대비한 민방위 대원용 방독면 확보율은 목표량 8만4810개과 비교해 66%(5만6184개)에 불과했다. 방독면 목표량은 민방위 대원 수의 80%를 확보가 기준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무더위 쉼터' 지역별 편중 심하다

동구 53, 서구 243곳

문태환 시의원 지적

광주시가 올해 폭염 대책의 하나로 운영중인 '무더위 쉼터'가 지역별·시설별 편중이 심해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문태환(광산2) 의원은 8일 시의회 추경 예산결산심사에서 "운영중인 무더위 쉼터 646곳 중 서구가 243곳으로 가장 많고 광산 193곳, 남구 74곳, 북구 83곳, 동구 53곳 순이다"고 밝혔다.

인구 수 기준으로 북구가 전체 149만여명의 3분 1 가량인 45만여명, 광산이 40만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구별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이다.

서구 인구 수는 31만여명, 남구는 22만여명, 동구는 10만1천여명이다.

폭염 취약계층은 홀로 사는 노인·거동불편자 등 1만368명이 지정돼 있다.

무더위 쉼터는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보건소 등이며 지정받은 곳은 재난구호기금으로 한 곳당 10만원의 냉방비를 받는다.

경로당만을 기준으로 할 때 서구 242곳, 광산구 173곳, 남구 74곳, 북구 55곳, 동구 38곳 순이다. 광주시내 전체 경로당 수는 10272곳이다.

복지회관은 동구·서구·광산구만 각 1곳씩 지정돼 있으며 남구와 북구는 없다.

보건소도 북구 1곳, 광산구 2곳이 있으며 동·서구와 남구는 없다.

주민자치센터도 동구 14곳, 북구 27곳, 광산구가 14곳만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문 의원은 "자치구가 쉼터를 지정하지만 시가 일괄된 지침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구호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현실성과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아베 日총리, 자민당 총재 무투표 연임

총리직 3년 연장 구상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총재를 투표 없이 연임하게 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총재직 임기가 이달 말 종료함에 따라 치러지는 총재 선거 출마에 의욕을 보여온 노다 요시히코 전 자민당 총무회장이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단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이날 고시된 총재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하며, 무투표로 총재직을 연임하게 됐다.

아베 총리는 첫 집권 직후인 2006년 10월 자민당 총재로 취임해 1년가량 자리를 지켰으며 2012년 9월 다시 총재직을 차지했다. 그는 이로써 당 총재 3선을 기록한다.

노다 전 총무회장은 아베 총리에 맞서 유일하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다. 그러나 자민당 내 7개 파벌이 모두 아베 총리 지지를 선언하는 등 '아베 독주' 분위기에서 출마에 필요한 추천인 20명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 총재가 되는 것은 일본 총리직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상의 필요조건이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새로 시작되는 자민당 총재 임기 3년간 총리직을 이어가는 것을 전제로 정국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상품안내

단위 : 만원(VAT별도)

구 분	다이렉트1	다이렉트2	퍼펙트(법인)	프라임
총 액	3600	1050	1600	950
통장보증	3000			
입 회 금	600	1050	1600	950
이용기간	5년 180회	5년 180회	5년 280회	5년 140회
이용횟수	월4회 년36회	월4회 년36회	월6회 년56회	월3회 년28회
회원등재	본인+무기명	본인+무기명	본인+무기명3	본인+무기명

※주중/주말 사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상담바랍니다)

선불 특별회원 가입안내

-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정회원 대우 그린피 혜택
- 호남, 제주 그린피 전액 지원
- 법인 무기명 4인 사용 가능
- 동남아, 중국 무료라운딩(동절기)
- 년2회 국내 및 해외 회원 초청행사

GOLF (주)리즈골프

상담문의 (062)371-1800

리즈골프는 2002년도에 설립되어 업계 최다수의 회원님들을 서비스 관리해 드리고 있는 고객만족도 최고의 회사입니다.

직원모집

- 골프 유경험자 우대
- 나이 성별 제한없음
- 골프장 선불회원권 컨설팅
- 근무지 : 광주/순천